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지금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기차를 타고 '코로나'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도착지는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차더라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암울한 나날들이다. 잠시 출구가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어두운 터널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세대, 모든 공간에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답답한 심정만 토로할 따름이다. 남아 있는 것은 터널을 달리는 규정 속도와 안전 수칙뿐이다. 기차 객실을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최소한의 이동만 가능한 상황이다. 객실에서 웃거나 떠들 수도 없고, 음식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다. 자연스럽게 긴장감은 높아지고, 감정은 날카

어두운 터널을 건너는 법

로워진다. 무언기를 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설피게 제안하거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모두의 견제를 받게 된다.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언제쯤이면 이 터널의 끝을 만날 수 있을까?' 정도이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예측 불가능한 질문만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더 큰 문제는 달리는 기차 안에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누군가는 생존 자체가 위태롭고, 답답하지만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도 있다.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삶의 질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터널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편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두커니'라는 단어가 아닐까. '우두커니'라는 단어는 사전에 '낮이 나간 듯이 가만히 한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양'으로 정의되어 있다. 처음에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 우두커니 있었다면, 지금은 우두커니 있는 모습이 일상이 되고 말았다. 언제 나올지 모를 출구를 기다리면서 마냥 '우두커니' 있을 것인가.

혹여 지금 지나고 있는 터널의 끝을 만날 수 있겠지만, 만약 또 다른 터널이 그 앞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두커니'라는 단어를 만난 시를 읽어 본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병어 리쳐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아/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장현중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전문,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문학과지성 사·1989))

대부분의 사람들은 터널의 끝과 출구만 생각하고 기다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한 게 없으면 추억도 없다. 삶의 축적이란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 개념을 떠올릴 수 있다. 처음 이 개념을 사용한 것은 임업 분야였다. '나무를 베는 만큼 나

무를 심는다'는 의미에서 출발한다. 현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는 일은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10년 후, 100년 후, 나아가 1000년 후를 상상하는 일이다. 지금 모 든 것이 멈추고 의미가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끝을 모르는 터널의 연속이다. 코로나라는 터널이 아니더라도 원래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거 삶이다. 시인의 말처럼,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하자.' 우두커니 남아 있지 말자. 일어나 걷자. 흐르. 같이, 걷자. 서로 안부를 묻자. 더 멀리 보고, 더 자주 듣고, 더 깊이 생각하자. 누군가는 터널을 탈출해야 가능하다고 말하겠지만, 속지 말자. 터널 안이든 밖이든,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자.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 분명할 것은 만약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미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종교칼럼

'절제' 욕망을 떼어 내는 능력



임형준
순천 빛보타교회 담임목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본능에서 시작된 욕망의 에너지는 태양처럼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인간의 삶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동의 동기를 만든다. 인류의 역사는 이 강력한 에너지를 지혜롭고 적절하게 운영하여 인류가 꿈꾸는 문명을 만들었고 그 결과 풍요로운 삶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런 인류의 역사가 모두 성공하지는 않았다. 욕망이 반사회적일 때 인간은 불행해졌다. 이 시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지구의 판도를 재편하는 최근 현상들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의 멈추지 않는 탐욕의 결과이다. 인류는 끊임없이 더 큰 행복과 성공을 꿈꾸고 간절히 바라며 그런 비전을 상상

하고 선포했다. 이런 인간의 열렬한 꿈은 조금씩을 자극하고 탐욕을 끈질기게 하여 경쟁적인 발견과 발명, 개척과 개발, 획득과 쟁취에 불타는 것발을 올렸다. 자연의 질서보다 인공적 원리가 앞서서 인간의 열심은, 자연이 병들고 파괴되어 몸살을 앓아 신음하여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더 큰 야망을 꿈꾸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 앞에 성난 자연은 인간과 불화의 관계가 되고 말았다. 갑자기 멈출 수는 없었지만 이제 인간의 이기적인 야망의 속도를 떨어 내어 조정하여야 한다. 삶이란 나를 위해 존재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꿈도 실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통해 자신의 꿈의 의미가 확장되는 법이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버린 구조의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제 느낌, 비위 냄, 잠시 멈춤의 법칙을 실현시켜야 할 때이다. 그렇기 않으면 비판해져 버린 지구는 모든 기능이 병들고 파괴되어 더 크고 심각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식탁에서의 식욕을 줄여

과식을 막아야 한다. 식욕을 억제하고 과식을 통제하는 것처럼 탐닉과 끊임없는 유혹들을 이기는 능력을 '절제'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절제의 의미를, 인간의 욕망 에너지를 억제와 감압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닌 일부를 떼어 내어 다른 에너지로 바꾸어 선택하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성경에서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나으니라(잠16:32)"라고 기록하여,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일은 성을 점령하기보다 어렵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다스리며 지배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여 성령(신)의 도우심 없이는 절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절제된 삶이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절제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자신의 것과 인간의 것, 또한 종교가 있다면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별하여 사는 통제력이 절

제이다. 이제 일상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욕망의 덩어리를 떼어 내야 하는 시간이 왔다. 아득다운 가치의 회복을 위해 다른 이상의 욕망을 떼어 내야 한다. 우리 일상의 삶은 시간과의 밀애이며 또한 싸움이다. 이런 일상 속에서 자신만을 위한 욕망들로부터 지켜 내기 위한 일종의 떼어 내야 필요하다. 매일 몇 시간씩 떼어 내 한 곳에 쓰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약속이 필요하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한 시간이라도 좋다. 매일 이 시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하며, 언제나 그 절제의 근육이 끈질기게 수 있도록 매일 돌봐 주어야 한다. 이런 시간의 선택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지키고 보살핀다. 그리하여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다. '절제'의 에너지는 우리 각자 인생이라는 공간에 이미지를 실현해 가는 붓처럼 자신이 만들어 가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 삶의 일부인 시간과 환경을 떼어 낸 선택은 분명 그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사람다움과 자연스러움이 회복되어 어우러질 것이다.

기고

전교조 '범외 노조 처분 위법' 판결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주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장

현대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국가의 기본적 의무인 국민의 생명권과 기본권 보호가 방기되고,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던 때가 있었다. 그때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파문을 던진 사건 중의 하나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범외 노조' 처분과 법원의 법외 노조 인정 판결이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받아 출지에 '범외 노조'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 3일 법외 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그에 배치된 판단을 하였던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려 4년여 동안 계류하였다가 이번에 결론을 내렸고, 이 판결로 인하여 일단 전교조가 범외 노조로부터 벗어나서 합법적인 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에 대해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해직 교원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2013년 9월 한 차례 더 시정 요구를 한 뒤 이행되지 않자 그해 10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외 노조 통보를 하게 된다. 이에 전교조는 이러한 법외 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 법외 노조 통보의 적법함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공개 변론을 거쳐 치열한 공방 끝에 전교조의 손을 들어 주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을 해고된 근로자가 노

조에 가입하고 있어도 법외 노조로 보아서 안된다'는 내용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2조 4호라 목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실제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법외 노조 통보 규정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대법관 다수 의견(12명 중 8명)은 이 시행령 조항이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 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 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률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은 하위 법규에 위임을 하게 되는데,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고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만 '법외 노조 통보' 규정을 둔 것이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실제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역사교과서 등의 이슈로 인해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정치성 고려 때문에 판결이 이겨져 나왔지 않은

가 싶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당시 상고 법원의 설치를 염두에 둔 대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이야기도 있다. 김재형 대법관은 별개의견으로 이 사건이 법 해석에 있어서 어려운 사건(hard case)이라는 전제 하에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을 '범외 노조'로 보는 것이 잘못이라는 견해를 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전북 고 교육청은 전교조 범외 노조 통보로 해직된 전북 지역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해 8일자로 직권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사법규정의 결과이며 적폐 청산의 진전이라고 본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노동조합법 규정의 형식 논리적인 법 해석을 통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 헌법이 인정하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해 좀 더 유연하고 전형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社說

광주 기초의원들의 '갑질' 이리도 많았더니

광주시 다섯 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 역본부의 '지방의회 의정 활동 조합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설문조사에는 공무원노조 광주 전체 조합원 5600여 명 가운데 60%인 3375명이 참여했는데, 응답자의 65%가 기초의원들에게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초의원들의 자질 및 갑질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상대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 그 심각성이 여실히 확인된 것이다. 공사 수의계약 요구와 인사 청탁은 기본이고 가족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이용하거나 생일 선물을 달라는 등 수준 이하의 갑질도 상당수에 달했다. 광산구의 한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이용하도록 압박하고 인근에 커피숍이 생기자 허가 관련 자료를 요구해 눈총을 받았다. 북구의회는 유독 갑질 의원들이 많았는데 A의원은 수의계약 요구와 모 단체

에 선심성 사업비 편성 등 각종 인공 개입은 물론 인사 청탁 민원을 수시로 넣었다. B의원은 자신과 불편한 관계인 재래시장 상인회장에 대한 보복성으로 시장 활성화 사업 일체의 자료를 요구했고, C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내세워 일감을 따거나 권리당원 모집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공무원노조는 기초의원들의 갑질 실태 확인에 따라 경찰에 요청해 갑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갑질 근절책은 투표를 통해 심판하는 것이지만 4년 단위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 따라서 주민 소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을 '중' 부리듯 하는 의원들은 정당한 방식으로 배지를 내려놓게 해야 한다.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 정부 지원 절실하다

광주시의회가 내일 개최될 전국 시도 의회 의정협의회 정기회에 '지역 공공 의료기관 설립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 골자는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타 면제 사업에 공공 의료기관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다른 지방자치 의회와 공동 대응 등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 감염병 전담 공공의료원(시립의료원) 설립에 나섰다. 1000억 원을 들여 음압 병상을 포함해 약 250병상을 갖춘다는 구상이지만, 예타 조항 때문에 선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추진의 걸림돌은 현행 국가재정법이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 의료기관 설립은 예타 통과가 매우 어렵다. 대전시 공공의료원 건립 사업도 같은 이유로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대전 등 세 곳이다. 코로나 19를 비롯한 감염병, 재난·응급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 보건 의료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수익성만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을 따질 게 아니라 국민 건강복지 차원에서 공공의료원 설립 지원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긴급 사태 발생 시 중증 때문에 선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추진의 걸림돌은 현행 국가재정법이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성이

無 等 鼓

엇그제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LG 박용택의 '광주 고별식'이다. 맷 윌리엄스 감독과 주장 양현종이 꽃다발을 전달하고, 양 팀 선수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전광판에는 '굿바이(Good-Bye) 박용택. 제2의인생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상대 팀 레전드를 위해 KIA가 마련한 이벤트를였다. 은퇴 투어는 선수의 마지막을 모든 팀과 팬들이 축하해 주는 행사다. 메이저리그에서는 2012년 치퍼 존스부터 2013년 마린 리노 리베라, 2014년 데릭 지터, 2016년 데이비드 로터스까지 이어졌다. 한때 상대 팀들이 준 선물이 재미있다. 3루수였던 강타자 존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몇몇 팀에서 준 선물은 '3루 베이스'였다. 양키스의 마무리 리베라는 부러진 방망이로 만든 나무 의자 선물을 받았다. 리베라가 주무기인 '커터'로 상대 타자들의 방망이를 많이 부러뜨린 것에 착안한 것이다. 지터가 받은 선물은 대부분 등번호 2번과 관련된 것들. 양키스는 지터의 자선단체에 22만 2222달러 22센트의 기부금을 내기도 했

다. 은퇴 시즌에 타율 0.315, 38홈런, 127타점의 맹타를 휘두른 오티스는 많은 선물과 행사가 이어지자 '이렇게 바블 줄 알았다면 은퇴 선언을 하지 말 걸 그랬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은퇴 투어가 두 번 있었다. 2017년 이승엽과 이호준이다. 선수들이 마련한 광주일교 출신 SK 이호준은 경기 전 꽃다발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는 정도로 끝났지만, KBO 차원에서 진행한 이승엽의 은퇴 투어는 상대에게 치러졌다. KIA는 1995년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이승엽이 데뷔 첫 홈런을 친 것을 기념하며 당시 홈런 타구가 떨어진 지점의 '관중석'을 선물했다. 야구는 기록으로 말한다. 기록은 기억을 넣고, 기억은 추억을 만든다. 그리고 이 추억들이 모여 야구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아쉽게도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두 선수 해태 선동열과 이종범의 은퇴 투어는 없었다. 다만 국가대표 1선발 KIA 양현종은 훗날 전교를 돌며 은퇴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재관 편집부장 jkyo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